

### '공격 축구' 클린스만호 4득점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뒀다. 한국 축구가 4골 이상 넣으며 승리한 것은 1년4개월 만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10월 A매치 친선경기에서 4-0으로 크게 승리했다.

이강인이 후반 10분 프리킥 골로 상대 골문을 열었고 2분 뒤 추가골을 터뜨렸다. 상대 선수 야시네 메리아가 후반 22분 자책골을 넣었고 황의조가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쐐기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 튀니지전에서 이강인은 A매치 데뷔골에 이어 멀티골을 터뜨리며 포효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이로써 한국 축구는 1년4개월 만에 4득점 경기를 만들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끌던 당시 대표팀은 지난해 6월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4-1로 승리한 바 있다.

이번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향하는 공격 축구가 가능성을 보여준 점 역시 의미가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가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1-0보다 4-3 승리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이날 첫

4득점 경기를 만들었다.

한국은 17일(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펼친다.

### 리그 100승 다저스 DS 싹쓸이 패



▲ 2023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애리조나 피닉스에게 패한 LA 다저스 선수단이 무력하게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A 다저스가 가을야구 무대에서 또 한 번 힘없이 무너졌다. 3년 연속 페넌트레이스에서 100승 이상을 거두기도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한 채 2023 시즌에서 퇴장 당했다.

12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다저스는 전날 애리조나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DS, 5전 3승제) 3차전 애리조나 다

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4로 졌다. 이로써 앞서 안방에서 열린 1, 2차전 패배에 이어 3연패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 좌절됐다.

다저스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62경기 100승 62패, 승률 0.617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정규리그 100승 이상을 기록한 구단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104승 58패), 볼티모어 오리올스(101승 61패) 3개 구단뿐이다.

하지만 다저스의 '가을야구 약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올 시즌 84승 78패의 애리조나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3위에 턱걸이하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이었다.

다저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규리그를 60경기만 치르고 포스트시즌 운영 방식도 바뀌었던 2020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제외하면 매년 가을야구 때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21, 2022 시즌에 이어 올해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발목을 잡혀 2024 시즌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 NBA에 풀타임 한국인 심판 탄생



▲ 한국인 최초로 NBA '풀타임' 심판을 배정 받은 황인태 심판. 사진=A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에 한국인 최초로 '풀타임' 심판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한국프로농구(KBL) 출신인 황인태(44) 심판이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NBA는 이날,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3-2024시즌을 책임질 74명의 전임 심판과 8명의 비전임 심판을 배정해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시즌까지 비전임 심판으로 활동했던 황 심판이 전임 심판 명단에 포함됐다. 몬티 매커천 NBA 심판 개발·훈련 부문 부회장은 "능력이 뛰어나 NBA 정규 시즌 경기 전임 심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대한민국농구협회 심판으로 데뷔한 황 심판은 KBL에서 통산 466경기에 나섰다.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농구 결승전 등 굵직한 국제경기를 도맡기도 한 베테랑이다.

이후 황 심판은 미국으로 건너와 인생 2막을 시작했다. 2020년 1월 아시아인 최초로 NBA 심판 양성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그는 2021-2022시즌 NBA 하부리그를 경험한 뒤 지난 시즌 2부리그인 G리그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심판을 봤다. NBA에서도 비전임 심판으로 정규시즌 7경기를 배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NBA 코트에서 휘슬을 불기도 했다.

미국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황 심판은) 농구 심판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2020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뉴저지로 7,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왔다."며 그의 NBA 전임 심판 배정에 관심을 보였다.

## 한국 전통 대낚시 <sup>☆</sup> 무료교육

### • 미국에서도 낚시를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

\* 개인이 무료교육 봉사합니다.

• 초보자 환영 / 주말에 같이 출조하실 분

• 캠핑 낚시 / 벙에돔 바다 낚시

• 낚시에 관한 모든 교육

<이메일 문의하세요>

abocado3228@naver.com

